솔 향기 사이로…힐링과 도전이 공존하는 '솔모로CC'

이천IC에서 차로 15~20분…편리한 접근성
프로도 긴장시키는 다이내믹한 코스들 인기
총 평점 9.3점…2년 연속 10대 골프장 유력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선정이 유력한 솔모로CC는 소나무 숲이라는 순우리말 지명이 말해주듯 소나무가 울창한 자연환경이 장관이다. 접근성까지 좋아 25년 넘게 많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솔모로CC 파인 3번홀 그린 전경(왼쪽)과 길게 늘어선 나무들이 인상적인 체리 1번홀 티박스에서 바라본 코스 풍경. 사진제공 | 솔모로CC

솔모로CC의 '솔모로'는 경기도 여주·이천 지역의 순수 우리말 옛 지명이다. '솔'은 소나무, '모로'는 무리를 뜻한다. 솔모로CC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한다는 일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1년 개장해 25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회원제 명품 골프장 솔모로CC는 소나무가 많은 산림욕 골프장으로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접근성이 좋은데다 코스 난이도와 즐거움이 공존해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6홀로 구성된 코스는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한다.

2016년 동아일보와 스포츠동아, 국내 최대 골프부킹서비스 업체 엑스골프(XGOLF)에서 주관하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돼 골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중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도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이 유력하다. XGOLF가 집계한 평점을 보면 그린피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9.5점을 기록하는 등 전체 평점 9.3점으로 라운드를 즐겼던 골퍼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고객들과 늘 근거리 유지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45분 거리의 솔모로CC는 이천IC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10km 부근에 있다. 4차선 국도를 타고 15~2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한 빼어난 접근성이 장점이다.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개통으로 더욱 편리한 접근성을 갖췄다. 국내 골프장 가운데 4차선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곳이다. 가는 길이 좁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까지 한 골프장과 비교한다면 자가운전을 해야 하는 골퍼들에게는 꿈같은 곳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솔모로CC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들과의 거리도 좁히고 있다. 골프장 인근 지역민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부킹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해 언제든 부킹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부킹의 기회를 줘 만족도가 높다. 최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생일, 회원 노캐디 라운드, 체리-퍼시먼 코스 여성용 티박스 조정 등)를 통해 호평을 받았다.

솔모로CC는 1991년부터 여주시 가남읍 사무소에서 경로잔치를 여는 등 장학금전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제2회 골프의 날을 맞아 여주시 가남읍 '시원한 여름나기'사업의 일환으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9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했다. 쌀 10kg 100포, 실버카 10대 등 850만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했다. 솔모로CC에서는 15년째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기탁해왔다. 해마다 가남 소재 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 연탄 후원과 배달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즐거움과 도전의식을 동시에 주는 명품 코스

파인 코스와 메이플 코스에서는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 여자 대회가 열렸다. 넓은 평원의 아름다운 코스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라운드가 가능하다. 넓고 긴 페어웨이로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날릴 수 있고 온화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코스세팅 덕분에 에버리지 골퍼에게 인기가 높다. 푸른 소나무가 많고 숲이 울창하다.

시원하게 뻗은 소나무와 홀 사이의 간격이 넓어 다른 플레이어의 간섭이 전혀 없이 내 플레이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 할 만하다. SBS골프 중계팀으로부터 스카이 뷰가 국내 최고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체리 코스와 퍼시먼 코스에서는 남자프로골프(KPGA) 메리츠솔모로오픈 남자대회가 열렸다. 프로도 긴장시키는 다이내믹한 홀이 많아 도전적인 골퍼에게 사랑받는다. 평범한 라운드가 지루한 골퍼들에게 도전과 극복, 성취와 환희를 느끼게 할 특별한 코스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직벙커가 도전과 성공, 극복의 성취감을 선사한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전략적인 코스를 통해 진정한 싱글 골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체리 코스 8번 홀에는 일명 몬스터라 불리는 높이 2.8~3.8m의 벙커가 특징이다.

최용석 기자 gtyogng@donga.com

박인비인비테이셔널 상금, 지진 피해 이재민과 나눈다 LPGA vs KLPGA 내일 티샷



24일부터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에 출전하는 KLPGA팀과 LPGA팀이 첨성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참가선수 26명은 최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및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금의 일부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2017년 골프시즌을 정리하는 국내 필드 고별전이 이웃의 아픔을 달래는 가슴 따뜻한 무대로 펼쳐진다. 24일부터 경북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가 최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및 경북 지역 주민들과 슬픔을 나눈다.

호스트인 '골프 여제' 박인비(29)를 비롯한 출전선수 26명이 대회 상금 중 일부를 위로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빛낸 선수들이 팀을 나눠 경쟁하는 이벤트 대회다. 호스트 박인비를 필두로 유소연(27), 김세영(24), 전인지(23) 등이 LPGA팀으로 나서고, 국내무대 전관왕에 빛나는 이정은6(21)과, 고진영(22), 김지현(26) 등이 KLPGA팀으로 뭉친다. 이들은 24일 포볼게임, 25일 포섬게임, 26일 1대1 싱글매치 플레이로 승패를 가린다. 매치별로 승리는 1점, 무승부는 0.5점이다.

최종 우승은 3일간 쌓은 승점 합산 방식으로 결정된다. 총 10억원 상금 가운데 우승팀이 6억 5000만원을 가져간다.

개막을 이틀 앞둔 22일, 기자회견장에 모인 출전선수 전원은 결의를 다지기에 앞서 최근 지진 피해로 아픔을 겪었던 이웃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박인비는 "지난해에 이어 같은 지역에서 큰 일이 발생했다. 가슴이 아프다. 고심을 많이 했다. 피해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우리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선수들끼리 모여 상금의 일부를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회가 열리는 경주는 포항과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15일 지진 당시 포항을 비롯해 경주 일대도 피해가 속출했다. 경주는 박인비의 남편 남기협 코치의 고향이다. 다른 선수들 역시 박인비의 이러한 마음에 선뜻 동의했다. 덕분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골프대회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게 됐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농구

강이슬 25점…KEB하나, 삼성생명 완파

3쿼터만 3점슛 4방…팀 연패 끊어
토마스 공백 삼성생명 3연패 수렁

KEB하나은행이 슈터 강이슬의 득점 쇼에 힘입어 삼성생명을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 부천 KDB하나은행은 22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용인 삼성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3점슛 5개 포함, 25점을 기록한 강이슬을 앞세워 92-66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득점을 기록하며 승리한 KEB하나은행은 2연패에서 벗어나 신한은행(3승4패·공동3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KEB하나은행에게 이번 경기는 승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삼성생명의 주득점원 엘리사 토마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이었다. KEB하나은행 이환우 감독은 "이런 경기에서 승수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패할 경우에는 그 타격이 두 배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 감독은 국내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시즌 두 외국인선수(나탈리 어천와·카일라 쏜튼)가 평균 30점 가량(평균27.0점)을 올렸는데 올 시즌에는 이사벨 해리슨과 자즈몬 과트미(평균 26.0점)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득점이 지난시즌보다 2점 가량 상승했다(2016~2017시즌 평균64.6점, 2017~2018시즌 평균68.7점). 강이슬~염윤아~백지은 등 국내선수들의 득점이 증가했다. 우리 팀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이다"고 했다.

지난시즌 팀의 주포로 성장한 강이슬은 이날 경기 전까지 평균 16.8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6개 구단 국내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이다. 강이슬은 이날 경기 3쿼터를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3쿼터 시작 4분 만에 3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는 매서운 득점 본능을 뽐냈다. 3쿼터에만 4개의 3점슛을 포함해 무려 19점(역대8위)을 몰아넣었다. 강이슬을 중심으로 공격에 불이 붙은 KEB하나은행은 이사벨 해리슨, 자즈몬 과트미, 김단비의 득점이 더해지면서 3쿼터에만 무려 35점을 넣었다. WKBL이 단일시즌(2007~2008시즌)이 시작된 이래 한 쿼터 최다득점 기록이었다.

3쿼터 종료 부저가 울렸을 때 점수는 71-52, KEB하나은행의 19점차 리드였다. 이미 승패는 가려졌다. KEB하나은행은 4쿼터에 주축 선수들을 빼고 여유 있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삼성생명은 케일라 알렉산더(13점·10리바운드)만이 분전했을 뿐 국내선수들의 야투 적중률(2점슛 45%·3점슛 23%)이 떨어졌다. 다시 한번 토마스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낀 삼성생명(3승5패)은 3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은 4쿼터 도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로 퇴장을 당했다. 이번 시즌 첫 감독 퇴장이다.

용인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부천 KEB하나은행 강이슬(왼쪽)이 22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용인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강이슬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삼성생명을 꺾었다. 사진제공 | WKBL

업그레이드 된 뉴질랜드 웹스터 형제를 공략하라

허재호, 오늘 월드컵 예선 1차전 격돌

허재(52)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은 23일 오후 3시10분(한국시간) 뉴질랜드 웰링턴 TSB뱅크아레나에서 열리는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예선 1라운드 A조 1차전에서 뉴질랜드와 격돌한다. 새로 도입되는 홈&어웨이 제도 아래 치러지는 첫 경기다.

뉴질랜드는 FIBA랭킹 27위로 34위의 한국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우리가 재미를 봤다. 8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FIBA아시아컵에서 두 차례 붙어 모두 승리했다. 조별리그(76-75승)에 이어 3~4위전에서도 80-71로 승리했다. 당시 뉴질랜드는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번 경기에서는 멤버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아시아컵 때 뛰었던 선수는 5명 뿐이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코리 웹스터(28·189cm), 타이 웹스터(22·186cm) 형제가 새로 합류했다. 코리 웹스터는 현재 이스라엘 2부리그 아이로니 나하리야에서 뛰고 있다. 2014년 한국-뉴질랜드 평가전에서 주득점원으로 활약해 우리 농구팬들에게도 익숙하다. 슛, 돌파능력이 탁월한 가드로 경계대상 1호다. 동생 타이 웹스터는 현재 독일 1부리그 프래포트 스카이라이너에서 주전 가드다. 독일 1부리그 울름 소속의 파워포워드 아이작 포투(23·203cm)도 주목할 만하다.

허재 감독은 "뉴질랜드가 아시아컵 때보다 선수 구성이 더 좋아졌다. 포지션 별로 좋은 선수들이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지욱 기자